

고소남발 영화감독 김기덕
규탄 기자회견
"진실을 밝히려는 목소리는 막을 수 없다"

■ 진행순서 ■

사회: 이윤소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부소장

■ 발언

홍태화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

박건식 | MBC <PD수첩> 피디

강혜란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배복주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한유림 |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전문위원

■ 질의응답

2019. 4. 18 (목) AM 10시 30분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주최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

※ 보도 시 유의사항 ※

본 기자회견에서 언급되는 피해자 A씨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은 촬영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피해 외에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기덕 감독을 법적 고소한 사건의 고발자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시 '성폭행'으로 표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성추행'으로 표기해주시길 참조부탁드립니다.

김기덕 감독은 자성하고, 즉시 사죄하길 바란다

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

괴테의 말처럼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것”은 필연일까? 발언자는 약 7개월에 걸쳐 피해자분이 향후 검찰에 고소한 내용과 동일한 영화인신문고 피해 신고내용을 직접 사실 조사하였다.

첫째, 뺨을 수차례 때린 폭행에 대해 김기덕 감독은 “스텝 중 한 명이라도 폭력으로 증언을 한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라고 했으며, 실상 스텝 증언으로 사실 확인되었다. 둘째, 성적수치심을 주는 장면 촬영 강요에 대해 김기덕 감독은 “촬영에 참여했다는 것은 시나리오상 연기와 제작사의 제작 지시와 연출 지시를 따른다는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저예산으로 열악한 조건상”, “4년이 지나 갑자기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피해자분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셋째, 스텝들에게 피해자분이 무단하차(이탈)했다라며 허위사실로 명예 훼손한 것에 대해, 프로듀서와 피해자분의 녹취 대화를 통해 상호 협의하여 하차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분이 가해자에게 바라는 것은 오롯이 진심어린 사과, 오직 그것뿐이었다. 그렇다면 영화인신문고의 모든 피해 사실을 확인된 만큼, 김기덕은 그에 응답을 해야 했다. 그러나 피해자분들의 용기로 제작된 PD수첩 ‘거장의 민낯’을 통해 김기덕 감독의 짙은 그림자가 온 천하에 공개된 이후 지금까지 고통 받은 어느 누구에게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세계적인 미투 열풍 속에서도, 김기덕 감독은 본인 작품의 여배우 인권을 짓밟은 폭행 유죄판결을 받아도 보란 듯이 유بار리영화제에 개막작으로 작품이 초청되고, 모스크바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또한 가해자 김기덕 감독을 두둔하며 피해자가 현장을 무단이탈했다는 누명을 씌운 프로듀서는 현재 영화제작자와 프로듀서로 왕성히 활동 중이다. 가해자와 가해자를 두둔하는 자는 영화계에 활발히 남고 피해자는 영화계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영화 현실이라니 참담하다.

영화예술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폭력적인 현장, 뿌리 깊은 인권침해에서 탈피하고, 영화 현장 내 성평등이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시작을 해주신 피해자분의 뜻을 받아 한국 영화계는 올바른 풍토가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자신이 가진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진실한 사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 대응은 물론, 반성과 사죄조차 하지 않은 몰인식한 자들에 대해서는 영화계 퇴출운동까지 감행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김기덕 감독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피해자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해주길 촉구한다.

영화인들의 수치로 남을 김기덕감독의 오만한 행보를 규탄한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이하 민우회)는 고 장자연씨사건을 계기로 영화계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적 문화와 관행을 개선해나가기 위해 만들어졌다. 김기덕 감독과 관련해서는 2017년부터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해온 바 있다.

2017년 이후 김기덕감독을 둘러싼 피해자들의 증언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인 그의 영향력 앞에서 지나간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와 운명을 같이 하는 영화인들은 여전히 제작현장에서 벌어진 문제적 행위들을 함구함으로써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반복적으로 2차 가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기덕감독은 단 한 번의 사과나 성찰도 없이 베를린영화제,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 피렌체한국영화제 등 해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모스크바 영화제의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다. 이는 다수의 미투 가해자들이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행보이다.

또한 그는 피해자와 MBC <PD수첩>에 대한 형사 고소, 지원단체인 민우회에 대한 3억 손해배상 소송, 피해자와 MBC <PD수첩>에 대한 10억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증거 불충분'이란 해당 사실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한 그의 행태는 모두를 경악하게 하는 수준이다.

우리 사회는 미투 이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어왔던 성차별/성폭력적 행위들을 바꾸어나가려 노력중이다. 남성카르텔에 의해 옳고게 보호되어 왔던 안희정, 고은 등 유명인들에 대한 판결도 달라진 젠더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가해자들의 문제적 행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피해자와 지원단체, 비판적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켜 자신의 영화계 내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김기덕감독의 무책임한 행보를 좌절시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민우회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양심적 변호인들이 나서주었다. 그들은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온 민우회와 같은 지원단체를 겁박하는 김기덕 감독의 비뚤어진 인식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꼼꼼한 법률적 대응을 시작하였다. 피해자와 MBC <PD수첩> 또한 그러할 것이다.

우리는 더 큰 목소리, 더 큰 연대로 김기덕 감독의 도발을 좌절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아집과 독선으로 점철된 그의 행동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도 성차별적인 것인가를 반드시 확인시켜줄 것이다.

역고소로 출구를 찾을 수 없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미투운동으로 성폭력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발언은 가해자들의 실체를 보여주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사과와 반성보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거나 합의된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하며 피해자의 발언을 의심했다.

그 방식으로,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역고소(무고, 명예훼손, 위증, 손배소 등)를 하거나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고소(명예훼손, 위증, 손배소 등)하여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덮어버리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에는 고은 시인은 성추행 혐의를 폭로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10억 7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7월 1심 재판 중에 검찰 측 증인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여 피해자를 위해 증언하는 증인들의 입막음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올해도 김기덕 감독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했다.

권력관계를 기반한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유무형의 위력행사로 피해자의 일상을 통제한다. 이러한 영향력은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무력화 시킨다. 피해자를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면서 자신의 범죄행위를 오히려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출구를 찾아간다. 출구전략으로 피해자의 행실을 근거로 불륜, 꽃뱀으로 몰아가고 피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이동시키고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역고소 방식을 취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성폭력 피해자들은 2차 피해와 역고소로 인해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전체 구조건수(195건) 중에 22건이 역고소 피해 지원이며, 2018년 전체 구조건수(380건) 중에 81건이 역고소 피해지원이다. 2018년 미투운동의 촉발로 인해 역고소 피해 지원을 요청하는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자와 단체들의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김기덕 감독이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 단체, 방송사를 대상으로 손배소

등의 역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그룹을 약화시켜 실제적 진실을 숨기고 피해자의 일상을 균열 내어 괴롭힘과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등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소가 (동의 여부가 아닌) 강제력을 근거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물적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점으로 인해 법적 처벌의 공백이 여전한 상황에서, 김기덕 감독이 법적 처벌을 피했는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중의 인식과 문화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화감독으로서 분명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깊은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명예 회복을 위해 역고소를 통해 출구를 찾고 있다면 그 출구의 끝은 더 큰 부끄러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김기덕 감독 사건에 대한 영화단체 공동 성명서

우리는 김기덕 감독이 영화를 만들며 저지른 인권침해와 김기덕 감독의 피해자들에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2차 피해에 대해 유감과 우려의 뜻을 표합니다.

김기덕 감독은 2017년 '강요, 폭행, 강제추행 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되었고, 2018년에는 MBC '피디수첩'을 통해 그의 촬영 현장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및 성폭력 혐의들이 폭로된 바 있습니다. 방송 이후 김기덕 감독은 '피디수첩'과 방송에서 증언한 여배우 두 명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과 방송의 내용이 허위 사실로 보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김기덕 감독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며,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김기덕 감독은 지난 3월 '피디수첩'과 여배우A씨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가하면, 4월 18일 개막하는 모스크바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장을 맡는 등 해외영화제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반성과 성찰도 보여주지 않는 김기덕 감독과 그를 옹호하고 그에게 공적 활동의 기회를 주는 사람들 모두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018년 시작된 미투운동은 성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다양한 권력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폭력이기 때문에 문제제기하기가 어렵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법과 제도의 미비함 때문에 제대로 처벌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영화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화계에서는 2016년 시작된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이후로 영화인들이 직접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영화 촬영 전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조직 내 성폭력 및 성평등 관련 규정을 만드는 한편, 영화계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는 기관도 설립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폭력을 용인하지 않으며, 어떠한 폭력과 차별도 없는 영화 현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영화 개봉이 취소되고, 감독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김기덕 감독 본인이 저지른 일들의 결과입니다. 김기덕 감독이 더 이상의 2차 가해를 멈추고, 이제라도 자신

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성하기를 촉구합니다. 동료 영화인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김기덕 감독이 “입증 가능한 법적 책임만큼이나 도의적 책임의 무게를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2019년 4월 18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영화단체연대회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여성영화인모임 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